



## 유튜브 예능 전성시대

‘국민 MC’ 유재석과 가수 성시경에 이어 ‘19금 토크의 장인’ 신동엽까지 연달아 유튜브에 진출해 좋은 성적을 내면서 예능 프로그램의 무게중심이 기존 TV 채널에서 웹 플랫폼으로 한층 더 기울고 있다.

8일 유튜브 채널 통계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지난 8월 개설된 유튜브 채널 ‘짹한형 신동엽’은 이달 7일까지 18개의 영상으로 누적 총 2593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구독자 59만5000명을 모았다.

영상별 평균 조회수는 287만회를 넘고 매일 수천 명씩 구독자가 늘고 있어 앞으로가 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짹한형 신동엽’은 신동엽이 매회 다른 게스트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다. 채널 제목의 ‘짹한’은 안타깝다는 뜻과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의 의성어를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작진은 첫 영상에서 자막으로 ‘리얼한 술자리’라고 채널의 성격을 설명했다. 영상 후반으로 갈수록 신동엽과 게스트가 점점 얼굴이 붉게 변하고 발음이 무뎠다는 모습이 재미 요소다. 신동엽이 게스트와 나누는 솔직한 취중 대화도 눈길을 끈다.

신동엽 이전에도 유명 연예인이 유튜브에 뛰어들어 성공한 사례는 많다.

‘국민 MC’ 유재석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뽕뽕’은 작년 11월 개설됐다. 지난 7월 기준 13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상 평균 232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뽕뽕’ 채널의 주 콘텐츠는 유재석이 게스트

유재석·성시경·신동엽 등 잇따라 유튜브 채널 개설  
술·맛집 탐방 등 콘텐츠

연예인 게스트 초청 토크쇼  
평균 수백만 조회수 기록  
예능 무게중심 웹 플랫폼으로

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핑계고’다. ‘추석은 핑계고’, ‘커피 한잔은 핑계고’, ‘뽕보신은 핑계고’ 등 주제를 정해 게스트와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눈다.

가수 성시경 역시 2020년 12월 자신의 이름을 딴 채널 ‘성시경’을 시작해 현재 구독자가 160만명에 달한다. 영상 평균 조회수는 76만회를 넘는다.

이 채널에 주로 올라오는 콘텐츠는 성시경이 맛집을 탐방하거나 게스트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성시경의 먹을텐데’다. 조회수가 최대 600만에 육박하고 영상에 등장한 가게가 맛집으로 소문날 정도로 인기다.

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이 주축이 되는 채널 ‘노빠꾸탁재훈’은 작년 3월 첫 영상 공개 이래 132만명 구독자를 모았다. 영상 평균 조회수가 232만회에 달한다.

탁재훈이 면접이나 취조 등의 설정으로 매회

다른 게스트를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특유의 순발력과 입담으로 재미를 주는 토크쇼다.

정상급 예능인들이 잇따라 유튜브 예능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예능 콘텐츠의 무게중심이 TV 채널에서 웹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소비자가 영상 콘텐츠를 정해진 시간에 TV 앞에서 시청하기보다 언제든 원하는 때 휴대전화와 PC 등 원하는 기기에서 시청하는 것이 새로운 영상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결과다.

그러나 유명 연예인이라도 유튜브에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정상급 연예인을 전면에 내세웠음에도 빛을 보지 못하는 콘텐츠들도 있다.

‘예능 대부’로 불리는 이경규의 유튜브 채널 ‘르쿠르 이경규’는 올해 4월부터 동영상 공개했으나 6일 현재 구독자 9만9000여명, 영상 평균 조회수 26만8000회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내고 있다.

유재석과 더불어 ‘국민 MC’로 꼽히는 방송인 강호동은 작년 12월부터 ‘SM C&C 스튜디오’ 채널의 예능 ‘강호동네방네’에 출연 중이지만, 아직 100만 조회수를 넘진 동영상도 없다.

자유로운 표현을 넘어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다뤄 실패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술먹지상렬’은 방송인 지상렬의 취중 토크쇼를 담은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나 지상렬과 제작진이 지난 5월 게스트인 래퍼 스윙스에 게 무례하게 대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뒤 영상 업로드가 중단됐다. /연합뉴스

## 평론가가 뽑은 최고 가수는 ‘조용필’

임진모 등 39명 참여...이미자·김광석·나훈아·아이유 순

대중음악평론가 39명이 선정한 ‘우리 시대 최고 가수’로 ‘가왕’ 조용필(사진)이 뽑혔다.

8일 임진모 평론가의 소속사이자 유튜브 채널 ‘음악 아저씨 임진모’ 제작사 오간지프로덕션에 따르면 조용필은 총 43명의 표본 가수를 대상으로 한 평론가 앙케트에서 35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조용필은 1968년 록그룹 애프터스쿨로 데뷔해 김트리오, 조용필과그림자 등 밴드를 거쳐 솔로로 나섰다. 1976년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히트한 것을 시작으로 1980년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등이 수록된 1집으로 국내 가요계 사상 첫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스타 반열에 올랐다.

조용필은 지난해 11월 20집의 선공개 싱글인 ‘할나’와 ‘세레게티처럼’을 발표해 여전히 세련된 감각과 녹슬지 않은 보컬로 평단의 찬사를 받았다. 그는 올해 데뷔 55주년을 맞아 정규 20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필을 두고 박수진 평론가는 “소리의 탐구자, 그의 여정이 곧 한국 대중음악 역사의 단면”이라고 평했고, 조해람 평론가는 “한국이 보이저호를 쏘면서 단 한 곡만 실어야 한다면 조용필 노래 중에서 골라야 한다”고 짚었다.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는 23표를 얻어 2위, ‘서른 즈음에’를 부른 김광석은 21표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김진성 평론가는 “이미자의 진솔한 가창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고 평했고, 신혜림 평론가는 “(김광석은) 세상을 떠난 지 27년이 지났어도 대체할 수 없는 목소리”라고 평가했다.

나훈아는 20표로 4위를 차지했고,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K팝 스타’ 아이유가 19표로 5위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아이유에 대해 박수진 평론가는 “젊은 창법의 ‘나우’(NOW) 아티스트”, 김진성 평론가는 “드라마와 영화까지 21세기의 K팝은 물론 문화콘텐츠의 아이콘”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10위 이내로는 이소라·김건모(18표·공동 6위), 이승철·박정현(17표·공동 8위), 임재범(16표·10위)이 이름을 올렸다.

포패티김(14표·11위), 김현식(13표·12위), 송창식(10표·16위), 배호·신승훈(9표·공동 17위) 등이 상위 20위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는 임진모, 김도현, 정민재 평론가 등 음악 웹진 ‘이즈’(IZM)의 전·현직 필자 39명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 가수는 1960년대 이후로 한정됐고, 이에 이난영·고복수·남인수·현인 등은 제외됐다. /연합뉴스

## 임영웅, 신곡 ‘두 오어 다이’ 발표

직접 작사...27일부터 전국 콘서트

가수 임영웅(사진)이 9일 오후 6시 새 디지털 싱글 ‘두 오어 다이’(Do or Die)를 발표했다고 소속사 물고기뮤직이 밝혔다.

이번 신곡은 지난 6월 ‘모래알갱이’ 이후 약 4개월 만에 선보이는 곡이다.

물고기뮤직은 “‘두 오어 다이’는 인생이라는 무대 위 주인공이 돼 후회 없는 매일을 보내자는 열정을 담은 곡”이라며 “임영웅이 직접 작사에 참여해 자작곡 ‘런던 보이’(London Boy)와 ‘모래알갱이’에 이어 또 한 번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면모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임영웅은 특히 이번 신곡을 통해 기간 선보인 점잖고 세련된 매력과는 180도 다른 화려하고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전날 먼저 공개된 ‘두 오어 다이’ 뮤직비디오에서 임영웅은 우주인으로 변신해 ‘칼군무’ 실력도



뽕냈다. 이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도 올랐다.

임영웅은 오는 27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D돔(체조경기장)을 시작으로 전국투어 콘서트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